

더존, 세무사회에 소송 제기... '뉴젠회계프로그램 사용말라'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다양한 회계프로그램 제공해야' 법적 대응 더존 포석(?)... 회계프로그램 시장 완전 독점을 위한 세무사회 길 들이기

지난달 10일 ㈜더존비즈온은 춘천지방법원에 (주)뉴젠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 알파를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사용하지 말고 회원들에게 제공하지 말라며 한국세무사회와 이창규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소송(가처분)을 제기했다.

세무사회는 더존의 소송 제기에 대해 더존이 뉴젠회계프로그램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뉴젠회계프로그램의 세무사사무소 공급을 차단하여 회계프로그램시장의 완전 독점을 위하여 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를 길들이기 위한 사전 포석 그리고 향후 세무사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

더존은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회계지식 및 실무능력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토록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회계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뉴젠회계프로그램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검증 프로그램으로 추가한 바 있다.

더존은 소송에 앞서 더존의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은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만 제공키로 1999년 세무사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회와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을 위반하고 금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세무관리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무사회를 상대로 뉴젠회계프로그램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사용하지 말고 회원들에게 제공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더존의 이런 행위는 뉴젠회계프로그램의 세무사사무소 공급을 차단하여 프로그램시장을 완전 독점하기 위한 더존의 일방적인 행태이자 수험생들의 회계프로그램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법적 대응키로 했다.

더존의 소송제기와 관련하여 임순천 전산이사는 "더존비즈온은 지난 10여년간 전산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존중의 원칙 아래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위해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세무사회는 수험생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더존, 세무명인프로그램 외에 뉴젠회계프로그램을 추가했는데 회원들이 사용하는 세무회계프로그램도 아닌 시험검증용 뉴젠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것도 영업비밀 위반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세무사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세무사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며 세무사업계 우수인력 양성과 세무회계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존, 뉴젠회계프로그램 866개 항목중 2개 항목이 영업비밀 침해하였다며 기소

세무사회, 회원들에게 피해 없도록 뉴젠회계프로그램에 대책 요구

뉴젠회계프로그램, "재판에서 침해여부 판정날 것이나 법적문제 없도록, 6월에 수정된 새로운 회계프로그램 공급하겠다"

법무법인, 뉴젠회계프로그램 사용한 회원 '법적책임 없고', '침해된 부분 수정하면 문제없음'

더존은 지난해 6월 뉴젠회계프로그램이 더존의 중요 소스코드를 뉴젠회계프로그램에 적용했다는 이유로 뉴젠회계프로그램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저작권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뉴젠회계프로그램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저작권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세무사회는 더존이 뉴젠회계프로그램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뉴젠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사무소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뉴젠회계프로그램 관계자는 "지난해 더존이 뉴젠회계프로그램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저작권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결과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뉴젠회계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총 866개 중 데이터그리드와 리포트 뷰어 관련 2개 항목이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영업비밀 침해로 문제가 된 부분은 뉴젠회계프로그램의 전체 프로그램 중 단지 0.23%에 불과한 것이며, 전체 실행파일의 크기 대비로는 0.87%(2.4MB/275MB)에 해당 하는 아주 극미한 부분 이다"라고 밝히는 한편 "뉴젠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세무사 회원들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 뉴젠회계프로그램은 "검찰이 뉴젠회계프로그램의 866개 항목 중 2개 항목이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침해여부는 재판이 끝나야 확정되는 사안이다"라며, "설사 뉴젠회계프로그램이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더라도 뉴젠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면서 세무사 회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젠회계프로그램은 6월 중에 법적시비가 없도록 문제가 된 2개 항목을 수정하여 새로운 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더존이 뉴젠회계프로그램을 기소한 것과 관련하여 뉴젠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사무소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세무사회의 법률자문에 대하여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들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뉴젠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밝히면서 "다만 대법원에서 뉴젠회계프로그램이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정판결이 난 후에는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회계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즉,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법적 다툼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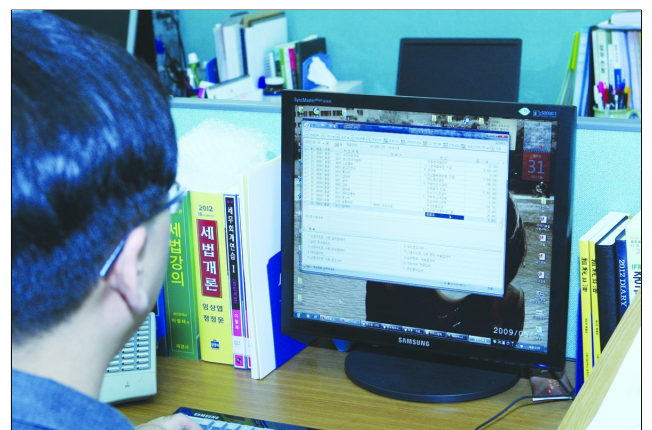
뉴젠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으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후에는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6개 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뉴젠회계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관한 협약을 통해 회원들에게 리버스 알파 등 회계프로그램을 공급해 왔다.

6개 지방세무사회장과 뉴젠회계프로그램은 회원들이 사용중인 뉴젠회계프로그램은 검찰의 기소와는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토록 유지보수를 하는 한편 새로운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의 법률자문을 요청 받은 법무법인들은 뉴젠회계프로그램과 관련된 임직원들이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설사 더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뉴젠회계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새로운 회계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세무사회 회원들이 뉴젠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를 사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더존이 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주영진 회계솔루션개발위원장은 "세무사들 앞에서는 늘 상생의 관계이고 세무사 덕분에 그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내더라도 뒤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1년에 20만명이 넘게 응시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뉴젠회계프로그램을 사용(제공)하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재 더존의 모습이다"라며, "이는 세무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착각 속에 세무서비스시장을 프로그램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라고 더존의 행태를 비판했다.



▲ 회원사무소에서 뉴젠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 알파'를 이용해 세무업무 처리하고 있다.